

# 온화한 인품, 학회 창립의 주역이신 서울대 송계원 교수님

이 성 기(Sung Ki Lee)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축산식품전공

## 글을 시작하며....

축산식품학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덕분이지만, 선배 회원들이 학회를 떠난 후에는 평생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던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취지로 조금이라도 그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축산식품학회를 빛낸 인물”이라는 주제로 “축산식품과 산업”란에 신설된 이후 두 번째 인물컬럼을 쓰게 되었다.

막상 존경하는 송계원 은사님의 업적과 은덕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니 몇 번이나 망설여지게 된다. 우선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캠퍼스에서 6여년간 생활했던 학창시절이 35년 이상 지났고, 교수님께서도 정년하신지도 30년이 되었다. 긴 세월이 흘러서 은사님의 고귀한 뜻이나 교육철학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나지만 학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들에 관한 일화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다. 졸업 후에도 가끔 명절 때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지난날의 나의 행동이 부끄럽고, 더구나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두번 전화를 드렸지만, 최근에는 몸이 불편하셔서 전화까지 연결되지 않아 일종의 죄송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내가 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지만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를 안 나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학부까지 졸업한 서울대 이무하 명예교수나 충북대 최양일 교수도 나와 같은 복잡한 심정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그들 대신 용기를 내어 연필을 들었다.

## 교수님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셨다.

교수님은 강원도 춘성군 북서면 내평리 153번지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다. 춘성군이 오늘날 춘천시로 편입된 옛 지명이다. 내평리라는 곳은 양구로 가는 고을인데 소양강 댐을 막는 바람에 동네가 물에 잠겨 없어졌다. 소위 실향민 아닌 실향민이 된 셈이다. 송계원 교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인품이 온화하시다고 하신다. 그것은 고향이 강원도 산골이라 순수한 정기를 받고 성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교수님은 고향을 떠나 1939년에 춘천에 있는 춘천농업학교(전 춘천농고, 현재 소양고등학교) 수의축산학과에 입학하셨다. 아무튼 고향 시골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춘천으로 나오셨다는 것은 오늘날의 대도시로 유학 온 셈인데, 당시로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내평리에서 대도시인(?) 춘천으로 나와 학교에 다니신 것도 대단하신데, 이어서 1945년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축산학과에 입학하여 1948년에 졸업하셨다. 아마 그 고등학교에서 수재만 서울대학교에 갔었으리라. 그 후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석사와 미주리 대학에서 수학한 후에 1969년에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교수님의 졸업 후 행적을 보면 1944~1945년에 수원고등학교 조수로 근무하시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당시 우

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여서 해방 전후에 수원역 앞에서 좌우의 군중들이 데모하는 혼란된 사회상을 말씀하시곤 하셨다. 해방 후 공백기를 지나 1948~1949년에 강릉농업고등학교 교사와 1949~1953년도 서울 농업고등학교 교사를 잠시 역임하셨다. 1953~1955년 2년반 동안 춘천농과대학 교수로 역임하고 드디어 1955년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어 1987년까지 약 33년간 모교에서 봉직하셨다. 춘천농과대학은 현 강원대학교의 전신이다. 대학원 은사가 내가 졸업하고 현재 근무하는 강원대학교에서도 근무하신 적이 있다니 묘한 기분에 친근감이 앞선다.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교내 각종 보직을 두루 역임하셨고 교육부나 농림부, 지역 행정기관, 국가산하 전문분야 관련 기관에서 각종 위원, 자문, 고문 등을 역임하셨다. 그 공로로 1960년 면려포장(勳勵褒章), 1971년 한국축산학회 학술상 등 다수의 상을 받으셨다. 학회활동을 살펴보면 1982년에 한국축산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1982~1984년에 한국식육학회 회장에 취임하셨다.

## 형제와 가족관계

교수님의 가족관계를 보면 사모님과 슬하에 2남 2녀를 두셨다. 사모님(오재성)은 교수님의 제자들과 자상히 이야기도 잘 하셨던 분이시고, 화술이 시원하고 솔직하시며 외향적인 성격으로 기억된다. 교수님 팔순잔치 때 사모님이 말씀하시길 본인은 그 옛날 대한민국 여군장교 출신이라신다. 당시 기준으로 노처녀 나이(24세)에 우리 교수님을 만나 시집 왔다고 하시며 웃는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전까지도 전화로 종종 통화를 하였다. 가끔 전화를 드리면 교수님보다 사모님이 더 반가워 하시고 나에게 대한 안부도 물으시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하시곤 하셨다. 내가 오래된 제자여서인지 몰라도 전화가 연결되면 용건 외에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때로는 교수님의 흉도 보시는 인간

적인 분이셨다. 나중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다.

교수님의 2남(영훈, 영빈) 2녀(영순, 영혜)의 자제분들은 모두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일하신다. 당시 주위 사람들이 말하길 송계원 교수님은 소위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다고들 하셨다. 시간이 오래되어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대학원 다녔을 때는 덕에 찾아가서 가끔 자제분과 함께 식사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다. 특히 큰 아드님은 나보다 연배가 위신데 당시 교수님 제자들과도 어울려 자연스럽게 대화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자녀중 막내 사위는 내가 근무하는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정윤식 교수로 가끔 만나 장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이왕 집안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교수님 본인 형제 집안 이야기를 조금 보태겠다. 송계원 교수님의 집안은 축산집안이라고들 한다. 송계원 교수님은 5형제 중에서 둘째이신데 작고하신 맏형 송세원님은 옛날 농업전무를 하신 적이 있고, 형제중 막내가 예전 농림부 축산국장과 축협회장을 하신 송찬원 회장이다. 4촌 동생인 송재원님은 예전에 한국낙농에서 근무하셨단다. 송계원 교수님의 조카들중에서 형의 아들은 강원대 축산학과를 나오시고 한우사육업을 하였고, 바로 아래 동생의 아들은 현재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 재직하는 송영한 교수다. 이같이 축산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이 많은 집안이다.

## 당시 배고프고 인기가 없었던 육가공

송계원 교수님은 아시다시피 건국대 황철성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 육가공학(식육학)의 1세대 교수이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가난과 싸워야 할 시기에 Meat Science를 전공하신 것이다. 고기는 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시절이었다. 쌀이 부족하여 막걸리도 담그면 안 되었고, 중고등학교 도시락에 쌀밥만 싸오면 안 되고 혼식을 장려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명절 때만 특별히 고기를 물에 넣어 끓여 가족과 함께 국을 나누어 먹었던 가난한 시절이었다.

교수님은 당시 시대상황에서 가장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육가공학을 전공하셨다. 인기가 없었다기보다 고기 가공을 할 여유가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었다. 원래 인품도 점잖으시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신 분이더 더욱 그랬지만, 당시 사육이나 가축영양을 전공하시는 다른 교수님에 비해 여러모로 활동이 눈에 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1970년대 중후반에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사회 분위기가 고기와 우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어서 육가공학을 배우고자했던 학생들이 송계원 교수님 연구실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고로 1980년 전후부터 많은 학생들이 육가공연구실에 들어왔다. 육가공학의 부흥기가 도래한 것이다. 당시 교수님의 연세가 어느 듯 50 중반이 넘으신 시기였다. 이런 저러한 이유 때문에 교수님 실험실을 거쳐간 대학원 제자가 다른 축산 전공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 교수님의 대학원 제자들은 누구인가?

송계원 교수님의 지도하에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생이 모두 몇 명인지,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세월이 너무 흘러 동문모임 조직마저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략 기억되고 파악되고 있는 사람이 20여 명 안쪽이다. 그 중 석박사를 모두 취득한 사람은 송인상, 이성기, 유익중 등 3명이다. 교



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는 이미 정년하신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무하 교수다. 가장 연배가 높으신 분은 한국 식품연구원에 근무하셨던 강통삼 전 실장이다. 현재 단양에서 친환경 양계생산을 하신다. 그리고 이무하 교수와 학부 동창이시고 한국식품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셨던 송인상 박사도 계신다. 이들 외에 기억을 더듬어 존칭을 생략하고 동문들을 상기해 보겠다. 안동욱(미국 Iowa 대학교), 최양일(충북대), 김준호(재미 거주), 유익중(전 한국식품연구원), 정명섭(중앙대), 이성기(강원대), 김동훈(전 축산과 학원), 이상호(한국식품정보원), 이창림(주식회사 금화), 김영봉(한국식품연구원), 김일석(경남과기대), 김일준(농협), 전기홍(한국식품연구원), 강종천(뉴질랜드 Ocean Food Service) 등이며, 이들은 전공분야에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 참고로 송계원 교수님의 대학원 제자는 아니지만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육가공학 분야로 활동하셨거나 활동 중인 분이 이유방(미국 전 UC davis 교수)와 김종원(참프레), 조철훈(서울대), 남기창(순천대)도 계신다.

### 은사님에 대한 일화를 더듬으며....

은사님과 관련된 여러 일화가 있지만 특히 기억나는 한두가지만 소개하겠다. 교수님은 수업을 하실 때 기존의 이론을 강의하시면서 항상 관련된 최신 논문을 주제별로 몇 개씩 알려 주시곤 하셨다. 당연히 논문을 찾아 알아서 공부하라는 메시지이다. 당시 교수님이 알려준 논문을 다 본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대학원생 강의를 위해 항상 새로운 논문을 읽으며 공부하셨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교수인 내 자신도 대학원생 강의를 위해 관련된 최신 논문을 일일이 읽지 못하는데, 당시 교수님은 그렇게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강의를 하신 것이다. 감사하고 존경스러울 뿐이다.

또 다른 기억은 육가공 제조 실험에 관한 것이다. 매년 햄, 소시지와 같은 육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돼지 두어 마리를 도축하는 실험부터 시작하였다. 대학원생 중에 살아있는 동물을 끔찍하게 살생(?)시켜 본 학생이 어디 있는가? 요즘과 같이 최신 도축기계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용이라 허용되는 도축 실습이었다. 쇠망치로 두개골을 강타하는 기절방법에 서툴러 별벌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짧은 시간에 정타로 크게 강하게 때려 기절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범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도살 후 발골할 때 노련하게 칼을 갈거나 칼질하는 시범은 모든 학생의 부러움을 샀다. 내장까지 버리지 않고 소시지 케이싱용으로 제조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있다. 나중에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이지만 교수님이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 유학중에 잠시 도축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닭은 기술인 것이다.

### 축산식품학회 전신 육가공연구회를 창립하고 활동하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축산물 이용에 대한 인식이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1970년대 중후반에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런 연유로 뜻이 있는 관련 학계, 업계 사람들이 모여 육가공연구회를 창립하게 된 것이다. 물론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축산가공학과에서는 고기와 관련한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왔다. 이들이 모두 모여 축산식품학회의 전신인 한국육가공연구회를 1978년에 창립한 것이다. 이어서 1979년 11월에 “육가공연구회보”가 제 1권 제 1호가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연구회

보 27쪽에 범혁을 보면 “1978년 10월 7월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송계원 교수외 30여 명이 모여 발기회를 갖고, 건국대학교 황칠성 교수를 회장으로 부회장에 송계원 교수, 김길득 사장을 추대하고, 감사에 채영석 교수, 간사에 박형기 교수, 성삼경 교수, 윤정의 교수를 선정하였다.”라고 기술되어있다. 당시 서울 농대가 관악에 있지 않고 수원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회합하지 않고 교통이 불편한 수원에서 모임을 가진 것을 보면 송계원 교수님이 상당부분 주도하셨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곳에서 수원농대 선배이신 건국대 황칠성 교수님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한 것이다. 그 해 11월에 건국대에서 평의원을 열고 회칙을 개정하였다. 드디어 1979년 5월 26일 건국대학교 소강당에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일본 구주대학 T.Y. Fukazawa(深澤利行)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의 축산현황과 식육사정”에 대해 강론도 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후쿠자와 교수외에 당시 동경대 Okitani Akihiro 교수와 오자스미노 여자대학의 Fujimaki Masao 교수도 함께 초청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오기타니 교수님은 우리 강원대학교에도 몇 번 오신 적이 있고, 내가 교수가 되어 세계식육학회(ICoMST)에서도 여러번 뵈고 사모님과 인사를 나눈 적이 있다. 그 이후 개인적으로도 부탁할 일이 있어 몇 번 접촉한 적이 있는데, 그 분이 한국에 처음 육가공연구회에 학술대회에 오셨다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육가공연구회가 창립되고 첫 학술대회를 치룬 그 이듬해에 내가 송계원 교수님 실험실에 들어왔다. 육가공연구회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1982년 회장이 되셨을 때도 옆에서 모시며 지켜보았다. 당시 학생인지라 실질적인 육가공연구회 일을 맡지는 않았지만 학회활동내역과 학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과 갈등들을 지켜보았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훨씬 더 지나서 후일담으로 남겨놓겠다. 은사님과 함께한 당시 회원들중에 이미 고인이 되신 황칠성, 김영교, 장관형, 안효일 교수님이 눈에 띈다. 식육분야의 원로 교수이신 채영석, 한석현, 박형기, 이유방, 강창기, 박구부, 성삼경, 양용, 문운일, 김천제, 박창일, 이근택 교수님들도 창립 멤버와 회원이셨다. 1980년에 송계원 교수님과 함께 현대식 육가공장 개소식에 참석하여 처음 알게 되었던 당시 CJ(제일제당) 이천공장의 문영덕님, 롯데햄에 김완규님, 그리고 업계에 계시면서 열심히 학회에 참석하신 이보명님(진주햄소세지) 등도 창립회원이셨다.

## 마치며....

오늘날 SCIE급 학회지를 발행하는 한국축산식품학회가 국제 학회와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축산식품학회 전신인 육가공연구회를 창립한 송계원 교수님을 비롯한 선배 회원님들 덕분이다. 이 지면을 통해 우리 학회가 태동하고 초기에 발전하도록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송계원 교수님과 여러 선배 회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정보의 한계로 인해 꼭 거론했어야 할 부분이 빠졌다면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